

## 〈要路院夜話記〉에 나타난 偏見의 양상과 解消의 의미

정하영\*

〈차례〉

- I. 〈要路院夜話記〉를 보는 다양한 시각
- II. 〈要路院夜話記〉에 나타난 편견의 양상
- III. 偏見의 解消와 새로운 만남
- IV. 〈要路院夜話記〉에 있어서 편견의 의미

### 〈국문초록〉

〈요로원야화기〉는 한국서사문학사에서 드물게 보는 특이한 작품이다. 그것은 '여행자 문학'이고, '일인칭 서술자 문학'이며, 대화체 문학이다. 이 작품은 여행 중에 있는 서울양반과 시골양반, 두 나그네가 주막에서 만나 하룻밤 동안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짙막한 분량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 身元 확인 과정에서의 일화, 作詩를 통한 재주 겨루기,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토론과 비판 등이 차례로 서술된다.

조선 숙종 때의 文人 朴斗世의 작품으로 알려진 이 작품에는 국문본 한 편과 20여 편의 한문본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본 간의 내용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은 '시골양반이 무식함을 가장해 서울양반을 속이고 골탕먹이는 이야기'로 이해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기존 해석을 수용하면서 그와는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고자 한다. 〈요로원야화기〉의 중심 내용은 두 사람의 만남과 사귄다. 출신과 성장배경이 다른 두 주인공이 여행 중에 만나지만, 상대방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서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중에 서로의 편견을 극복하고 마침내 의기투합하여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누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인간의 만남에 있어 편견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요로원야화기, 작시(作詩), 시골양반, 서울양반, 편견, 대화, 만남

## I. <要路院夜話記> 를 보는 다양한 시각

<要路院夜話記>는 한국서사문학사에서 드물게 보는 특이한 작품이다. 형식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旅行者 문학’이고, ‘一人稱 敘述者 문학’이며, ‘對話體 문학’이다. <요로원야화기>는 여행 중에 있는 두 나그네가 院幕에서 만나 하룻밤을 묵으면서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전하는 작품이다. 내용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짙막한 분량 속에 많은 話題를 담고 있다. 시골양반과 서울양반의 우연한 遭遇, 身元 확인 과정에서의 일화, 作詩를 통한 재주 겨루기,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 등이 차례로 서술된다.

이 작품의 작자는 조선 숙종 때의 文人 朴斗世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본 소재로 삼고 前代의 서사 전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학양식들을 활용하여 하나의 이야기구조를 만들었다.<sup>1)</sup> <要路院夜話記>의 이본으로는 국문본 한 편과 20여 편의 한문본이 전해지고 있다.<sup>2)</sup> 국문본은 한문본을 압축 번역한 것으로 보이며, 한문본 가운데 어느 것이 원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본들의 줄거리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 내용에

1) 鄭學城, 「要路院夜話記研究」, 『국문학논집』 13, 단국대, 1989.

金秀永, 「要路院夜話記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2) <要路院夜話記>의 이본은 이병기, 김동욱, 이수봉, 정학성 등에 의해서 소개되고 검토되었으며, 김수영의 논문에서 15편의 이본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승 과정에서의 적잖은 變改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있었지만, 작품을 보는 기본 시각은 '시골 양반이 무식함을 가장해 서울 양반을 속이고 골탕 먹이는 이야기'로 이해되어 왔다. <요로원야화기>는 다양한 시각과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입체적 문학작품이다. 다양한 시각의 검토를 통해서 작품의 성격과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같은 방향의 해석을 되풀이하는 것은 작품의 생명력을 제거하여 골동품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근래에 와서 이 작품의 새로운 이본이 소개되고,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면서,<sup>3)</sup> <要路院夜話記>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要路院夜話記>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평가를 수용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고자 한다. 작품의 서사 전개 방향에 주목할 때 이 작품은 서로 다른 性向과 성장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과 사귄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다.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된 시골양반과 서울양반은 각자가 가진 先入見, 또는 偏見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話를 진행해 나가는 중에 서로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되고, 마침내 의기투합하여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사람 사이에 상대에게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대화

3) 앞에 제시한 鄭學城, 金秀永의 연구 이외에 박희병은 <요로원야화기> 주요 이본들을 교합하여 연구의 자료로 제공하였다. (박희병,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pp. 616~618)

를 통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인간의 만남에 있어 偏見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해된다.

<요로원야화기>의 검토에 있어 이본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과제이다. 작품의 전체 구조에 있어서는 이본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세부적 내용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살피고자 하는 편견의 문제는 이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이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박희병 교수가 교합한 한문본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이본을 살피는 것으로 한다.

## II. <要路院夜話記>에 나타난 편견의 양상

### 1. 작품의 素材로서의 偏見

‘인간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는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편견의 문제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인간에게 있어 편견은 先驗的이면서 經驗的인 문제이다. 불완전한 인간은 사물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제한적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체험 역시 부분적이고 편향적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도 제한적이고 편향적이게 마련이다. 프란시스 베이컨(Bacon, Francis)이 말한 ‘종족, 동굴, 시장, 극장’ 등 4종의 偶像은 인간에게 편견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편견은 오해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며,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착각현상이다. 오랜 기간 동안 주자학 일변도의 편향된 이념을 받아들여 온 조선사회에서 편견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다. 가문이나 혈족, 직업, 출생지, 학벌, 외형, 言述 등 개인의 존재와 행동 하나하나가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소설작품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편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처럼 편견의 문제를 작품의 중심 소재로 삼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문제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안고 시작된다. 이도령은 춘향이 路柳牆花 같은 妓生일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였고, 춘향은 이도령이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난봉꾼으로 알고 동침하기 전에 不忘記를 요구하였다. <춘향전>이나 <오만과 편견>은 다같이 편견을 가지고 만난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편견을 거두고 이해하면서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연암의 <穢德先生傳>과 스토(Stowe)의 <영클톰스캐빈(Uncle Tom's Cabin)>은 이와 다른 방향에서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穢德先生傳>은 미친한 육체노동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심각하게 제기하였고, <영클톰스캐빈>은 흑인 노예에 대한 당시 백인 사회의 편견을 깨닫게 해주었다. <要路院夜話記>는 편견의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제기한 작품이다. 겉으로는 시골양반을 무시하는 서울양반의 오만한 태도를 통해서 그의 편견을 제기하지만, 속으로는 서울양반을 속이는 시골양반의 기만적 태도를 통해서 그의 또다른 편견을 제기하고 있다. 작품의 사사 과정에서는 이들 두 사람의 만남에서 편견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보여준다.

## 2. 작중인물의 만남과 편견의 양상

<要路院夜話記>는 시골양반인 '余'가 要路院에서 서울양반인 '客'을

만나 하룻밤 동안 나는 대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을 기준으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余’와 ‘客’이 서로의 신원을 숨긴 채 나누는 ‘어색한 대화’이고, 둘째 부분은 ‘余’와 ‘客’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나누는 ‘긴장된 대화’이며, 셋째 부분은 ‘余’와 ‘客’의 서로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나누는 ‘속깊은 대화’이다.<sup>4)</sup>

첫째 부분의 대화는 평범한 일상 대화의 형식을 띠고 전개된다. ‘余’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왔다가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는 초라한 행색 때문에 주막에서 번번이 투숙을 거부당한다. 날이 저물어 요로원에 이르렀을 때 숙소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서울양반인 ‘客’이 투숙한 곳을 찾아가 곁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客’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내쫓으려 하다가 그가 양반 차림을 한 것을 보고는 그냥 머물게 한다. 그를 말벗으로 삼아 장난을 치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낼 요량이었다. 이 사실을 눈치 챈 ‘余’는 자신을 시골 무지렁이로 위장하여 ‘客’의 오만을 꺾으려 한다. 여기서 대화는 ‘客’의 질문에 ‘余’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客’은 ‘余’의 말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시작하여, ‘余’의 所幹事, 초라한 행색과 촌스러운 말버릇, 혼인 여부, 글공부 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다. ‘客’은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지면서 ‘余’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며 때로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 ‘余’는 ‘客’의 이러한 의도를 눈치채고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써 ‘客’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하도록 유도한다.

이 상황에서 ‘余’의 신원은 고의적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客’의 신원 역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客’이 ‘余’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무지렁이

---

4) <要路院夜話記>의 구성을 세 부분으로 본 견해는 이우경(1997), 김수영(2006) 등의 연구에서 이미 나타나 있으나, 그 기준은 서로 다르다

시골양반'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余'는 '客'의 거만한 태도를 보고 '돼먹지 못한 서울양반'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余'를 데리고 장난을 치는 '客'과 '客'을 데리고 또다른 장난을 '余'는 다같이 진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작품의 말미에서 '客'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기만으로써 자신을 호도한 '余'의 태도에 대해 무서운 질책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둘째 부분의 대화는 시짓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서로에 대한 장난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각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계기가 생긴다. '余'의 완벽한 위장술에 넘어간 '客'이 긴장을 풀고, '余'를 조롱하는 戲作詩를 지어 보이면서 '余'에게 和答詩를 지어 보라고 재촉한다. 이에 '余'는 '客'의 詩句에 맞추어 그를 조롱하는 화답시를 지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 보인다. 그제야 '余'의 정체를 확인한 '客'은 장난을 접고 진지한 자세로 '余'를 대하고, '余'도 장난을 거두고 진지한 자세로 '客'을 대하기 시작한다.<sup>5)</sup> '客'은 자기의 과오를 사과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오를 유도한 상대의 기만 행위를 강하게 질책한다.

“고약하다 그대여, 고약하다 그대여. 어찌면 사람을 이다지 속인단 말이오? 간교한 꾀에 빠뜨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다니. …… 내 평소애 어리석은 기질이 있어 여행을 할 때 이런 일을 한 적이 많았지만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대에게 이렇듯 욕을 당하고 말았으니, 고약하도다. 아주 폭 빠져버리고 말았으니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가 반드시 임자를 만나고야 만다.'는 말이 결코 어긋나지 않는군요. 내 잘못이고 또 내 잘못이지만, 그대가 나를 속인 것도 너무 심하구려.”<sup>6)</sup>

5) 詩作을 통해서 개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은 <旬五志>에 실려 있는 입제, 권필 같은 문인들의 고사나 <구운몽>, <춘향전> 같은 문학작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6) 不詳哉 尊 不詳哉 尊. 何誑惑欺蔽之至此極歟. 墮尊術中 沒頭上下. …… 果有愚

이런 질책에도 ‘余’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客’은 좀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든다.

“그대의 속임이 헤아릴 수 없었소. 나는 처음에 그대가 ‘마소니 양식쌀’이니 하는 말을 듣고 조금 업신여겼고, 중간에 그대가 ‘김승이 자를 부른다.’는 말에서 크게 알보았으며, 마침내 그대가 ‘공자의 별호’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예 무시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대가 어리석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촌사람 티를 내고, 한문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속였으니 그대는 속이고 위장한 허물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sup>7)</sup>

잠시 승강이 끝에 두 사람은 마음을 풀고 시짓기를 계속하기로 합의한다. ‘客’이 준비해 온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眞書風月 을 주고받는다. 그들이 주고받은 시의 내용은 주로 자신들의 만남과 그 동안 주고받은 대화를 반추하는 것이다.

- 七言絕句 : 사람을 무시하다가 속임을 당함.
- 聯句 : 객지에서 귀한 벗을 만나게 된 인연.
- 四韻 : 재주 있는 벗을 만난 즐거움.
- 六言 : 좋은 경치를 즐기며 짧게 끝나는 데 대한 아쉬움.
- 三五七言 : 만나서 함께 술 마시고 시를 짓는 즐거움

한시의 여러 양식을 통해서 서로의 재주를 겨루다가 승부를 지을 수 없게 되자 ‘客’은 奇巧한 시로써 승부를 결정짓자고 제안한다. 詩句 중에 藥

---

氣 凡於旅次爲此舉屢矣. 未嘗一敗北 今卒困於尊. 不詳哉 可謂陷溺之滋甚 豈非所謂好勝者必遇其敵乎. 我罪也 我罪也 然尊之辱我太甚

7) 吾始於尊馬牛 糧米之言 而少慢之, 中於尊金丞呼字之談而大輕之, 終於尊夫子別號之說而全侮之矣. 然無鄉暗而故爲野態 知眞書而謬若不文 是則尊不免於詐僞二字也.

名을 넣기도 하고, 五行을 넣기도 하지만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재주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 속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셋째 부분은 지식인으로서 時局을 보는 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대화체 형식을 띤다. 대화의 주제는 科擧制度의 腐敗, 黨派싸움의 弊害, 선비의 處身, 儒學者의 타락 등 사회비판적 내용들이다. ‘客’은 ‘余’가 登科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높은 재주를 가지고도 과거에 오르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科擧의 부정과 부패로 옮겨간다.

“과거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소. 벼슬아치 집안 자제는 짓대니는 초학이라도 모두 과거에 높이 합격되고 시골의 유생은 호호백발 큰 문장도 과거에 떨어지고 말지요.”<sup>8)</sup>

다음으로 그들의 대화는 黨派의 문제로 옮겨간다. 당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세 당파에 대하여 터놓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당파의 양상과 폐해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거침없는 소견을 피력한다.<sup>9)</sup> ‘余’은 어린 자기 아들이 黨色에 몰들 것을 걱정해서 동서남북의 方名조차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파의 폐단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나는 초야에 있어 지금 세상일을 꾸짖을 형편이 못 되는데 어찌 입을 열어 말을 하겠소. 그러나 저의 얕은 소견으로 말하자면, 탁류라는 이름을 얻

8) 科擧之不公 未有甚於此時 閹閹子弟 則黃吻初學 皆占高科 鄉谷儒生 則皓首巨筆 尙屈場屋.

9) 후대의 개작본으로 보이는 <동야휘집본>과 <연세대본> 등에서는 당파에 대한 비판이 좀더 구체적이고 치열한 모습을 보여준다.

은 자는 반드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달려가 아부한 자들이고, 청류라는 이름을 얻은 자는 반드시 명절을 사랑하는 선비들일 것이오. 청류는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탁류는 제거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니 오늘날 청류라는 자들은 탁류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오.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저지르는 잘못이 심하지 않지만, 제거하기 어려운 자는 끝까지 빠지고 나서야 말 것이니, 청류의 해는 심한 데까지 이르지 않겠지만 탁류의 해는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오.<sup>10)</sup>

다음 화제는 선비의 몸가짐과 학문에 관한 문제이다. ‘객이 ‘余의 빈곤과 초라한 행색을 화제로 올리면서 유학자의 몸가짐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객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반드시 仁義를 말하기 좋아하면서 길이 빈천할 사람이군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여 세상에 이름난 학자가 되는 것이 첫째 일이요, 과거에 합격하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둘째 일이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못 한다면 집안일을 돌보아 농사를 힘쓰고 科擧를 잡고 재산을 늘려 좋은 음식과 의복을 갖추어 즐겁게 사는 것이 좋지, 웅크리고 앉아 가난에 찌들리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살리지도 못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소.<sup>11)</sup>

10) 我在草野 未諳當世事 何可發口言乎 第以淺見言之 以濁得名者 必是趨附權勢之人 以清得名者 必是顧愛名節之士 清者易退 濁者難去 則今日之所謂清流 固將見背於濁流也 鬪易退者犯手不甚 難去者滅頂乃已 清之害不至於甚 濁之禍將不可勝言也

11) 客笑曰 子必好言仁義而長貧賤者也 吾嘗謂 男子墮地 可行者有三策焉 讀書窮理 爲世名儒 第一策也 決科揚名以顯父母 第二策也 於斯二者 苟未有一焉 則寧當家力農 廢舉殖貨 飲食衣服 恣所美好 不猶逾於守拙坐窮 無計資生 上不足以養父母 下不足以育妻子者乎.

‘客’의 이 말은 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원론적인 것이지만, 여기서는 ‘余’의 초라한 행색을 빗대어 한 말이다. 이에 대해 ‘余’는 자기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쌓는 일이요, 그 다음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공을 쌓는 일이라고. 그대의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인데, 그 근본 생각을 보면 아마도 사마천이 말한 ‘이익을 우선하고 의리를 다음으로 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sup>12)</sup>

두 사람은 당시 유학자들의 공부하는 자세를 놓고 잠시 논란을 벌이다가 유학의 폐단과 선비의 그릇된 처신에 이르자 한목소리로 비판의 수위를 높인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예부터 외모를 꾸며 헛된 이름을 도적질하는 자가 매우 많지요. 강남 은자(隱者)의 호탕함과 중남산 은자의 방일(放逸)함은 끝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지요.” 객이 말했다. “그대의 말은 의분에 차서 한 말이군요.”<sup>13)</sup>

토론의 마지막에 이르러 두 사람은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다. <東野彙集本>에서는 이 밖에도 北伐論, 壬辰 丙子亂 같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후대에 부연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마음 다스림’에 대한 대화는 셋째 부분의 결말

12) 余曰 子之言可謂通矣 古人不云乎 太上立德 其次立言 其次立功 此之謂三不朽 子之言蓋出於此而 究其歸趣 恐未免於太史公先利後義之譏也.

13) 余笑曰 …… 但自古以來 飾外貌而盜虛名者甚多 江表之浩 終南之放 畢竟可笑矣. 客曰 子之言 蓋有所激而發矣.

이면서 <要路院夜話記> 전체의 결말이 된다. 두 사람이 서로 견해차를 보이면서도 서로 공감하고 함께 울분을 토하며 점점 깊이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대화의 내용이 時局問題에 대한 巨大談論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마침 마구간에 매어 두었던 말들이 소란을 일으켜 대화를 방해한다. ‘객’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종들을 나무라고 크게 벌을 주겠노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余’가 ‘하찮은 일에 대해 왜 지나치게 화를 내느냐?’고 나무라니 ‘객’은 그것이 자기의 고치지 못하는 병통이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해 ‘余’는 자신이 고안한 마음 다스림의 방법으로 九思가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이 말을 듣고 난 ‘객’은 그것이 자기 몸을 살피는 방안이 될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당신은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느냐?’고 다시 나무란다.

(객이) 또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여덟 가지는 잘 했는지 모르나 한 가지는 아직 하지 못하였소.” 하기에, 내가 묻기를, “무슨 말이오?” 하고 물으니 객이 말하였다. “그대가 거짓말로 나를 속일 적에 어찌 정성 성(誠)자를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오.”<sup>14)</sup>

‘余’가 제시한 ‘九思’ 중에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들 적에는 곧 정성이라는 말을 생각하라(有欲欺時 便思誠字)’는 구절이 들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余’는 이 질책에 대해 ‘아직도 속은 게 분해서 그러느냐?’고 농을 던지고 ‘객’은 ‘내가 그렇게 웅졸한 사람인 줄 아느냐?’고 맞받아치면서 대화를 마무리한다. 대화가 끝나자 두 사람은 함께 잠을 자고 이튿날 각자의 갈 길을 찾아 헤어진다.

14) 又笑曰 蓋能其八而未能其一也. 余曰 何謂也. 客曰 子詭言欺我之時 獨不思誠字乎.

<要路院夜話記>에서는 작중인물들이 만나고 친하게 되는 과정에서 偏見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품의 서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편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시골양반인 ‘余’는 초라한 행색과 보잘것없는 외모(短小無髯) 때문에 주막 주인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무시당하는 일(受侮見輕)’을 수없이 겪는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편견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흔한 것이어서 편견이라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한다. 주막 주인은 초라한 행색을 하고 나타나는 손님에게 쉽게 방을 내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이는 ‘余’는 아예 주막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양반이 들어 있는 곳을 찾아가지만, 거기서도 주막 주인에게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경험한다. 서울 양반인 ‘客’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종을 불러 내치라고 한다. 곡절 끝에 ‘客’은 ‘余’에게 같이 머물기를 허락하지만, 사람 대접은 하지 않는다. 비스듬히 누워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를 해도 답례를 하지 않는다. ‘客’의 이런 행동에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客’의 편견은 ‘余’의 유도장치에 의해 심화된다.

나는 생각하였다. “저 지는 서울 양반나부랭이로 의관이 화려하고 인마가 호장하다 하여 내가 촌놈인 줄 알고 예의도 차리지 않는군. 그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한 기운을 속임수로 꺾어야겠다.”<sup>15)</sup>

자신을 촌놈이라 무시하는 ‘客’의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를 詐術로 꺾기 위해 ‘余’는 촌스러운 말투와 언어 습관, 그리고 서울 사정과 세상 물정에

15) 余思之 彼蓋京華裙屐 衣冠鮮麗 鞍馬豪壯 謂我鄉谷者流而不爲之禮也. 其駭志驕氣 可以術折之.

어두운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객'의 편견을 부추긴다. 이런 유도장치에 걸려든 '객'은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계속하여 '余'의 존스러움과 無知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즐긴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당연시하고 심화하다가 극한에 이르러서는 툭툭히 망신을 당하고 만다. 처음에 그는 '余'을 가리켜 '尊'으로 부르다가 '君'으로 낮추어 부르고 마지막에는 '老道令'으로까지 격하한다. 거칠 것이 없었던 '객'은 '余'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肉談風月놀이'까지 시도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余'는 '객'의 작품을 패러디한 육담풍월을 읊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제야 '객'은 '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한다.

작품의 내용을 서술자인 작가의 시각으로만 보면 편견은 '객'만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작품 속에서 '余'는 작중인물이면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여 자신은 편견과 무관한 것처럼 보여 준다. 그러나 후반부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객관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余' 역시 적잖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로 나타나지만 편견에 대응하다보니 그 자신도 또다른 편견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가 '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객'의 말과 행위를 보고 쉽게 그를 돼 먹지 못한 인간'으로 단정해 버린다. 그가 詐術로 '객'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역시 편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함정에 걸려 더욱 깊은 편견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객'을 보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편견도 심화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객'은 '余'가 단정한 것처럼 통속적 인물이 아니었다.<sup>16)</sup> 그는 처음 보는 시골양반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그를 내치려 했

16) 김수영(2006), 앞의 논문, pp.50~54 참조.

지만, 그가 양반 차림을 한 것을 보고는 딱하게 여겨 그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다.

객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양반인데 양반이 양반하고 같이 자는 것이 안 될 일이 있겠소.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심함을 달래면 좋지요.<sup>17)</sup>”

이때만 해도 ‘객’은 ‘余’에게 기본적 예의를 갖추려 했다. 그러나 ‘余’는 이미 그를 마뜩찮게 보았기 때문에 ‘객’의 실체를 제대로 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처음에 ‘객’은 ‘余’의 촌스러운 언어관습을 비웃지만, ‘余’가 그것을 촌사람의 일상적 언어관습이라고 설명하자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것도 좋지요.(如君言 亦復佳也)’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슨 일로 어디를 다녀오느냐?’는 ‘객’의 물음에 ‘余’는 어리석음을 가장한 거짓말로 대답한다. ‘객’은 서울 물정에 어두워 속임을 당한 ‘余’를 딱하게 여기면서, 그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도 대체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양반의 기본 상식을 일러주고, 양반의 품위에 어긋난 말을 사용하면 격에 맞는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런데도 ‘余’는 계속 ‘객’을 속여 그로 하여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데 까지 이르게 한다.

‘객’은 촌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게도 많은 장점이 갖추어져 있다. 그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성품을 가졌고, 순진하고 진지한 면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余’는 ‘객’에 대한 첫인상과 그로 인한 편견 때문에 ‘객’이 가진 장점을 송두리째 놓치고 만다. 애초부터 그가 편견을 접고 진지하고 너그러운 자세로 ‘객’을 대했더

17) 客笑曰 尊亦兩班也. 兩班與兩班同宿 何爲不可. 同宿同話 足以破寂.

라면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고, 고의성이 짙은 '余'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余'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마음 다스림의 아홉 가지 방법 가운데 '상대를 속인 사기(詐)',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은 간교함(邪)', '실력을 과시하여 상대를 꺾으려 한 오만(傲)'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는 '客'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기까지 적잖은 시간과 마음고생을 해야 했으며, '客'으로부터 자신을 고의적으로 속인 데 대해 끈질긴 추궁을 받고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었다.

### Ⅲ. 偏見의 解消와 새로운 만남

#### 1. 편견의 해소 과정

편견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편견은 無知에서 생기고, 진지하지 못하고 닫힌 자세에서 자라게 된다. 이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지식을 넓혀야 하고,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要路院夜話記>는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余'와 '客'은 다같이 자신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지하지 못했고 장난스럽게 상대를 대했으며,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이들의 편견은 지속적 관심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해소

되고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余’와 ‘客’은 서로에 대한 편견 속에서 장난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이사이에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객은 스스로 촛불 밑뿌리를 잘라 들고 내 얼굴을 다시 보고는 입을 벌려 크게 웃으며 말했다. “여태까지 한 말들을 생각하매 구구절절이 속임을 당했으니 사람을 크게 부끄럽게 하는구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 단지 의관의 더럽고 낡은 것과 언어의 사투리만 보았지, 끌어당겨 속이고 수중에 넣어 마음대로 놀리는 줄은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전신이 폭 빠져버렸구려. 환한 대낮에 만났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겠소? 처음 그대가 ‘두 말을 한다.’는 내 말에 대답하는 것이나 도척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자못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끝내 깨달을 수가 없었구려.”<sup>18)</sup>

‘客’은 객관적 시각으로 주의깊게 ‘余’를 살펴보았다면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때늦은 후회를 한다. 이러한 사정은 ‘客’의 편견을 일부러 조장한 ‘余’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그가 겉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客’의 잘못만 나무라고 있지만, 끝에 가서는 ‘客’을 가리켜 ‘志士’로 부르면서 자신의 과오를 완곡하게 시인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客’이 내놓은 아름다운 술과 진기한 안주를 놓고 취하도록 마셨다. 함께 술을 마신다는 것은 마음의 양금이 사라지고 의기투합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장난이 아닌 眞書風月을 화답하면서 서로의 실력과 의중을 탐색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그

18) 客乃自拈燭頭 改觀我面 開口大笑曰 思向來說話 節節見欺 使人大慚. 第我夜遇子 只見其衣冠之污弊 言語之鄉暗 不知其引而誑之 籠而罔之 遂全身陷蔽. 可使白日當之 豈至於此哉. 惜乎 吾始於子對二言之說 答盜跖之言 頗自異之 而終不能覺悟也.

들은 한시의 다양한 詩體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열고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서로 속이고 속은 사실을 반성하고, 객지에서 만나 친구가 된 것을 기뻐하며, 상대방의 학덕과 고매한 의취를 칭찬하였다.

## 2. 새로운 만남의 실현

<要路院夜話記>의 후반부는 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두 주인공이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들은 이전에 나누었던 장난스러운 대화를 접고, 새로운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대화의 형식은 전반부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대화하는 자세나 대화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전반부의 대화 형식은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置換(substitution)한다. 전반부의 대화가 '客'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것이었다면, 후반부의 대화는 그들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대화였다. 우선 그들은 서로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客'이 '余'에게 서로 성명을 밝히자고 제안한다.

객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미 친하게 되었으니 성명을 일러 뒷날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sup>19)</sup>”

이러한 제안에 대해 '余'는 '客'에게 먼저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이름을 밝히라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이름을 밝히지 않게 된다. '余'의 거듭된 요구에 '客'은 '관두지요. 여관에서 만나 성씨는 밝혀서 무엇 하겠소.'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는 곳이 '회현동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만 밝힌다. 작자인 서술자는 이름을 밝히지

19) 客大笑曰 既已相親 道姓名 以爲後日之記 可乎.

않은 것을 ‘客’의 탓으로 돌리면서도 자신이 먼저 밝히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객이 끝내 성명을 말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속은 것을 알고 소문이 날 것을 부끄럽게 여겨 도리어 종적을 숨기고 그 일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이다. 객이 처음 물었을 적에 내가 먼저 말을 했더라면 그도 반드시 의심없이 자기 이름을 밝혔을 텐데, 내가 지나치게 사양하는 바람에 그로 하여금 먼저 비밀스러운 꾀를 내게 하여 끝내 성명을 듣지 못하였으니 한스럽구나.<sup>20)</sup>

‘客’이 성명을 밝히지 않은 데는 서술자인 작자가 유추한 이유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게 될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이 나누게 될 화제는 시국에 관한 불만과 비판이다. 그들이 하룻밤 동안에 사귄 친분으로는 이러한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주저스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명을 밝히지 않고 眞書風月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아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客 : 잘 세 처음으로 주막으로 날아들어	宿鳥初飛高院邊
우연한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되었네.	偶然傾蓋即佳緣
남쪽의 숨은 선비 귀한 보배 숨겨 있고	南州遺逸珍藏璞
서울의 못난 사람 소견이 좁았네.	東洛踈慵管天見
余 : 청풍 명월에 흥이 가이없고	清風明月興無邊
이 땅에 서로 만남 실로 인연일세.	此地相逢實有緣
기쁨과 슬픔 그대 술에 부쳤고	憂樂君能都付酒
궁함과 통함은 내 하늘에서 들었네.	窮通吾自一聽天

20) 終不言姓名 蓋客自知見賣 恥於傳播 反欲藏蹤而秘其事也. 當客之初問也 余若先言 則彼必不疑而道其緘 余過爲推讓 使彼先生密計 終不得聞姓名 可恨

‘客’은 ‘余’와의 만남을 ‘佳緣’이라 하였다. ‘余’를 가리켜 南州遺逸 이라 높이 추켜세우고 자신은 ‘東洛踈慵’이라 겸손해한다. 이에 대해 ‘余’는 ‘客’과의 만남을 ‘實有緣’이라 화답하면서 ‘客’의 고아한 의취를 칭송하였다. ‘余’를 무식하고 초라한 시골양반이라고 업신여겼던 ‘客’은 새로운 눈으로 그를 보게 되었고, 거만하고 무례한 ‘客’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余’는 그의 인품을 인정하고 칭송하기에 이른다.<sup>21)</sup>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의 대화는 한 단계 진전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당대의 지식인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였다. 두 사람이 科擧, 黨派, 지식인의 處身 등에 관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비판적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뢰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이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된 숙종 시대는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換局과 黜陟이 거듭되어 당파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이 극에 달했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제도나 당파에 대해 불만을 말한다는 것은 자칫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客’이 끝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도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요로원야화기>의 작자가 이 글을 자신의 문집에 넣어 작자로 자처하기 않은 것도 이런 이유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후대의

21) <東野彙輯 要路院 二客問答>에서는 ‘余’가 객의 인품을 칭송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부연되어 있다.

“그대는 참으로 지사이군요 호화로운 집에 거처하는 지는 …… 재앙이 조석 간에 닥쳤는데도 단잠에서 깨지 못하고, 위험이 지척에 있는데도 술에 취해 깨닫지 못하지요 그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고 염려하지 않는 자도 있고, 그 폐망을 고소하게 여기고 걱정하지 않는 자도 있는데, 시대를 상심하는 뜻과 세상을 걱정하는 말은 오직 그대에 게서만 보겠소.”(子誠志士也 彼處華屋者 …… 禍迫朝夕 甘眠未寤 危在咫尺 昏醉不省 有幸其災而無爲之慮念者 有甘其敗而無爲之憂歎者 傷時之忱 憫世之言 獨於子見之) <東野彙輯 要路院 二客問答>

이분에 이르면, 비판의 대상이 北伐論, 壬·丙兩亂 등으로 확대되고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화제가 시국 문제로 빠져들면서 ‘余’가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기미를 보이자 ‘客’은 서둘러 화제를 돌려 余 ‘의 초라한 행색을 다시 거론한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선비의 사명과 몸가짐에 대한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달아오른 비판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한다. 科擧와 당과의 문제가 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면, 선비의 사명과 몸가짐의 문제는 다분히 자기 성찰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극히 원론적인 것이었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自慰的 성격을 띠고 있다.

허창의 근재지가 말하기를, ‘도덕에 뜻을 두면 공명이 그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고, 공명에 뜻을 두면 부귀가 그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며, 부귀에만 뜻을 둔 자는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사람이려면 마땅히 이를 법으로 삼을 것입니다.<sup>22)</sup>

‘客’의 주도로 시작된 유가적 처신에 관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共感과 異見을 드러내면서 깊이 있게 전개된다. 그러다가 당대 선비들의 위선적 자세에 대한 ‘余’의 비판이 격렬해지자 ‘客’은 자기가 타고 온 말의 소란을 빌미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다. 그들이 잡은 화제는 개인의 마음 다스림, 즉 修身의 문제이다. ‘客’은 사소한 일에 분노하여 자제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 ‘余’의 꾸짖음을 받았고, ‘余’는 자신이 세운 九思의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 하여 ‘客’의 비판을 받는다. 그들의 대화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바탕 웃음으로 대화를 마무리짓는다(遂相笑而罷). 그

22) 許昌 靳裁之曰 志於道德 則功名不足以累其心 志於功名 則富貴不足以累其心 志於富貴而已二者 則亦無所不至矣. 凡爲人者 當以此言爲法.

동안 있었던 갈등과 대립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지 우열을 가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요로원야화기>는 단순한 경험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잘 짜인 한 편의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구성에는 작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것은 여행 중에 만난 두 사람이 진지하고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外形的 만남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內面的 만남이다. 그것은 장난스러운 만남이 아니고 진지한 만남이다. 그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知識人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만남이었다. 그들은 聯句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만남을 깊이 잊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였다.

余 : 주막에서 만나 주막에서 이별하게 되니	逆旅相逢逆旅別
客 : 친구의 마음을 친구가 알리로다.	故人心事故人知
余 : 다른 때 마땅히 오늘 밤을 생각지 않으리.	他時 倘憶今宵否
客 : 밝은 달 훤히 비취 여기에 있네.	明月分明照在茲

‘余’는 그 만남을 기록하여 훌륭한 작품으로 남겼고, ‘客’도 이 만남의 기억을 어떤 모양으로든 남겼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편견과 그로 인한 불신 때문이었다. 편견이 견히고 나서 신뢰가 생기고, 그 바탕 위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만남,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작품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보여 준다.

#### Ⅳ. <要路院夜話記>에 있어서 편견의 의미

<요로원야화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입

체적 작품이다. 일찍이 가람 이병기 선생이 작품의 해제에서 밝힌 것처럼 이 작품을 통해서 당대의 ‘語法, 世態, 趣向’ 등을 살펴볼 수도 있겠고, ‘隱喻, 諷刺로 골學者님을 타박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sup>23)</sup> 이처럼 작품을 보는 시각을 열어 놓고 볼 때, <요로원야화기>는 살아있는 작품으로서 독자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이 작품은 주로 ‘시골양반이 교만한 서울양반을 골려먹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여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제한된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을 풍자와 은유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작품의 전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다. 시골양반이 보내는 풍자와 은유는 작품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작품 후반부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만남에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전개 과정을 객관적 시각으로 균형 있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서술자인 시골양반의 시각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또다른 중심인물인 서울양반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偏見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것이 서사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편견의 문제가 작품의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이 <요로원야화기>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편견 때문에 만남이 방해받고 지연되지만, 그것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작품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이 작품의 성격과 의미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로원야화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편견의 문제가 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지한 문학은 사물에

23) 이병기, 『要路院夜話記』, 을유문화사, 1949, pp.7~8.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神話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說話는 일상적 사물과 인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깨닫도록 유도한다. 詩歌, 小說, 戲曲 등은 이러한 시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문학을 통해서 인간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을 제거하고자 한다.

소설은 흔히 인간의 편견에 희생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에 가려진 다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한다. 영웅으로 추대받는 위인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위선과 나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학대받고 천시받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은 편견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문학은 보편타당한 公論이 아니라 작가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담은 글이다. 문학의 생명이 되는 작가의 독창성과 개성은 실상 작가의 편견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화홍련전>은 前室 자식의 가여운 처지를 부각시킨다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한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繼母에 대한 편견을 확산하고 고착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모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새로운 작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편견의 문제는 진지한 문학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김동욱, <교합본 要路院夜話記>, 『韓國古典文學大系』 13, 민중서관, 1976.  
박희병, <校釋 要路院夜話記>,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이병기, 『要路院夜話記』, 을유문화사, 1953, pp.1~175.  
이수봉, 『要路院夜話記研究』, 태학사, 1984, pp.1~202.

- 김수영, 「要路院夜話記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pp.1~129.
- 김태준, 「要路院夜話記의 서울文明論」, 『국어국문학』 82, 1980, pp.53~74.
- 김정문, 「要路院夜話記研究」,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87, pp.1~101.
- 김창연, 「要路院夜話記考」,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9, pp.1~50.
- 大谷三繁, 「批評新證要路院記の紹介」, 『朝鮮學報』 49, 일본 천리대, 1969.
- 오상대, 「要路院夜話記의 주제」, 『영남어문학』 3, 1976, pp.193~202.
- 윤분희, 「要路院夜話記研究」, 『地域學論集』 2, 1998, pp.131~153.
- 윤숙자, 「要路院夜話記考」, 『國語國文學研究』 4, 1998.
- 이우경, 「要路院夜話記研究」, 『梨花語文論集』 15, 1997, pp.297~323.
- 정학성, 「要路院夜話記研究」, 『국문학논집』 13, 단국대, 1989, pp.86~99.



ABSTRACT

Prejudice and its Solution in *Yorowonyahwaki* (Records of night stories in Yorowon)

Jung, Ha-Young

*Yorowonyahwaki* is a significant Korean narrative, in terms of its theme and writing style. This work consists of dialogues between two travelers narrated by a first-person point of view. One of the main characters is a gentleman from Seoul, the capital city of Choson, and the other gentleman comes from a rural area. The two gentlemen meet by chance in a village inn and make conversation about themselves and social events.

Even though the length of the work is relatively short, the dialogues of two strangers reflect the contemporary social circumstances by describing episodes on their social positions, their criticism on social injustices, and the competition of writing poems.

Hitherto *Yorowonyahwaki* is considered as a simple story about a gentleman from Seoul who disguises himself as a fool and deceives the other gentleman from a rural area. This work, however, can be approach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By describing the meeting of two travelers, it deals with the issue of prejudice in human relations.

At the beginning of their meeting, they cannot understand each other and feel uncomfortable because of their prejudices against each other. While making conversation, however, they realize the sincere character of each other and establish a strong sense of bond over their prejudices.

This work, therefore, can be understood as the story of the existence of prejudices in a human society and overcoming it by depicting the meeting of two strangers.

**Key Words** Prejudice, *Yorowonyahwaki*, dialogue, first-person point of view, gentleman from Seoul, gentleman from a rural area, the competition of writing poems, travelers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

K C I